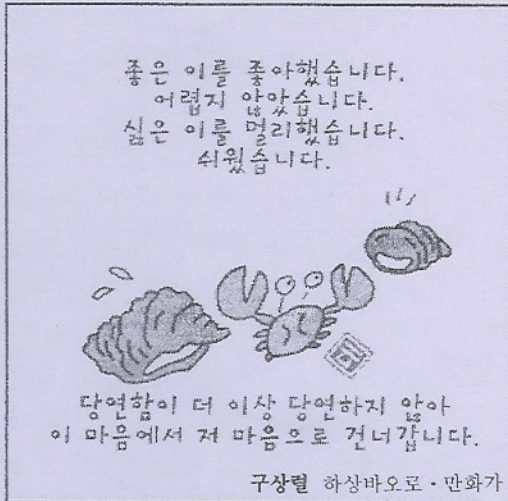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1주일
제28권 11호 (가해) 2008·2·10

[묵상]



나는 내 가족의 양식을 위해서만 늘 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빈손들이 주님의 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지식과 편견으로 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식이 턱없이 짧고 모자라며 나의 편견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땐 나약하고 힘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나를 자존심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회칠하여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다 버리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래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강소아, 손영달, 이영록, 이은중 장연수 마리아, 이금용 베드로, 정호순, 이윤복, 이준주 이기정 바오로, 이원구
	(생)문재원 클로달다, 최석원 안드레아와 대훈 아오스딩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방수영 치릴로 성낙호 요셉과 은혜실비아, 이문종 바오로와 마리아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최동섭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김형배 토마스, 이현호 요한, 민요한 마리아, 주재원 시메온 이은완 야고보, 황만근 베드로, 이준주, 김홍배 루카 이원일 안토니오, 이인홍 빅토리아, 이진호 스테파노 이정기 클레멘스, 강중익, 김용팔 다두 에두아르도 보닌(푸르실료창시자)
	(생)이종민 요셉, 임종택 베르나르도, 박진숙 엘리사벳 김형순 다니엘, 김은화 수산나, 이복내 마르타, 오메히틸다 배미카엘과 아나스타시아 가정, 이복임 엘리사벳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7-9;3,1-7
화답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례성가 63, 사순 제1주일 가해>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제 잘못을 말씀하 씻어 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앞에 있삽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얼을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주소서.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제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19<또는 5,12,17-19>
복음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복 음	마태오(Matthew) 4,1-11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1	151
봉헌	364	259,233
성체	361	280,299
파전	149	158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성령의 은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저항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구원은총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떠한 물욕, 명예욕, 권력욕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신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도움이 바로 은사(Charisma)이다. 은사(恩賜)란 하느님 성령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으로서 '다시 거두어 가지지 않는(로마 11,29) 하느님의 선물 전체'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로마 5,12-21), 또 영원한 생명이 되는(로마 6,23) 은총의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선물을 베푸실 것이다. 이 선물들 중에 첫째가는 것은 성령 자신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 것이다.(로마 5,5)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것은 성령칠은(이사 11,2-3),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9가지 봉사의 은사(1코린 12,8-10), 신자개인의 성화를 도모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갈라 5,22-23)이다.

1) 성령칠은(聖靈七恩) : 이사 11,2-3

- ① 슬기(wisdom): 자연·초자연적인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께 쉽게 마음을 향하는 은사.
- ② 통달(understanding):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능력을 수용하는 은사.
- ③ 의견(counsel): 선악을 구별하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는 은사.
- ④ 굳셈(power):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은사.
- ⑤ 지식(knowledge): 믿어야 할 진리와 믿지 말아야 할 허위를 식별하는 은사.
- ⑥ 효경(respect): 하느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성령의 은사를 믿고 따르며, 마리아를 어머니로 수용하는 은사.
- ⑦ 두려움(fear):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은사.

◆(계속-CBCK 제공)

유혹

교회는 재의 수요일로부터 부활 전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된다.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다.

첫 번째, 빵의 유혹이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마태 4,3).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40일씩이나 단식을 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먹어 보라는 것은 가장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음직스런 빵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배고픔을 느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배고픔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두 번째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밀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마태 4,6).

이 유혹은 참으로 매력적인 유혹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 앞에서 무엇인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함으로써 뽐내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의 말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겉으로는 하느님을 신뢰

하는 척하면서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이로써 인간이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최고가 되려는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명예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인기를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마태 4,7).

세 번째로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의 유혹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마태 4,8-9).

너무나 탐스러운 유혹이다. 남을 지배하고 그 위에 우뚝 서서, 남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은 얼마나 탐스러운가? 그렇기에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히 싸우고 있는가? 모든 부정부패가 이것으로 인해 생기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마태 4,10).

그렇듯 오늘 복음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유혹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먹음직스런 빵과 재물, 남에게 받고 싶은 인정과 명예, 남 위에 군림하는 힘과 권력, 그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탐나는 것들이다. 그렇듯이 모든 유혹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명동성당 부주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데레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3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가정성화와 레지오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지난 주간 합계: 1,730단 ☞ 총 합계: 249,816단

사 순 절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동안 엄재하신 것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구역별 사순피정 · 십자가의 길 안내 ☞

◆ 구역별 사순피정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사순 피정을 마련하였으니,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하십시오.

- 토런스 동,남구역: 2월26일(화) 오후 7시~9시30분
- 토런스 서,북구역: 3월4일(화) 오후 7시~9시30분
- 하버/카슨, P.V구역: 3월11일(화) 오후 7시~9시30분

◆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사순 제1주일 금요일(2월 15일):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2월 22일):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2월 29일):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 7일):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 14일):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 20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주일학교 은총시장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 은총시장: 3월23일(부활대축일) 오전 9시30분 미사 후
- 은총시장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e, San Diego)

- 주제: "Witness"
- 날짜: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170
- 신청마감: 2월24일(주일)까지
- 신청: 주일학교 교장 김베드로 ☎ 310-702-4273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

- 첫째 자녀 \$150, 둘째 자녀 \$140, 셋째 자녀 \$130
- 등록 장소: 2층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한국학교 교장 이헬레나 ☎ 310-347-8765
- 2008년 SAT II 준비반 수시 모집

◆ 병자 영성체

매달 첫 목요일에 실시하던 병자영성체가 이달에는 장례미사 관계로 14일(목:오전 9시30분부터)로 일시 변경됐습니다.

◆ 목요 교리반에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새 교리반 강의: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층 교리실

◆ 성서모임 개강: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기초반: 2월 13일(수) 개강, 오전 10시 30분, 강당
- 2단계: 2월 15일(금) 개강, 오전 9시 30분, 강당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있는 '거룩한독서'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제 60차 M.E. 수료자 재모임

- 2월17일 오후 4시 강당
- 문의: 오영섭 스테파노 & 지희 요안나 ☎ 310-922-150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웅	김관기	김선제	김선희	김완태	김원모
	김윤진	김일선	김재연	김정엽	김종환	김충섭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문영일	민기남	민봉식
	박상준	박인식	박정희	박준구	방정복	서홍삼
	성낙호	송재훈	송호창	신현화	안재만	엄혜은
	오세원	오일순	오진자	오태환	유선식	유정복
	유호연	윤희동	이광우	이근모	이명자	이민상
	이연행	이영희	이은록	이재용	이정우	임한나
	장숙환	장영우	정명모	조운영	천광락	최기남
	최수복	최현찬	황철수	영희가보라		
	합계: \$6,285					
	미사헌금: \$2,726.50					

성전헌금	김관기	김선제	김선희	김원모	김일선	김재연
	김종환	김충섭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문영일
	민기남	민봉식	박상준	박인식	박정희	박준구
	서홍삼	송호창	신현화	안재만	엄혜은	오세원
	오진자	오태환	유선식	유정복	윤희동	이광우
	이근모	이명자	이민상	이영희	이은록	이재용
	이정우	임한나	장숙환	장영우	조운영	천광락
	최기남	최현찬	영희가보라			
	합계: \$3,795					
	감사헌금: 익명, 황인중, 민원희					
	초봉헌금: \$1,485					

◆ 푸르실로 창시자 에두아르도 보닌 선종

세계 푸르실로 창시자인 에두아르도 보닌 형제님이 2월6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선종했습니다. 그 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모든 푸르실리스타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영화 '하늘에 이르는 계단' 상영

- 2월17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 소장)의 사순 특강

- 2월25일(월) 성전- 찬미: 오후 6시30분, 강론: 오후 7시
- 주제: '무지개 원리', 영적 저서도 함께 소개

◆ 글로리아 성가대원 모집

- 대상: 소프라노 파트
- 목소리 맑고 성량 풍부한 소프라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지휘자 배기엽 클레멘스 ☎ 310-325-7733

◆ 2008년 교무금/성전헌금 약정서

- 이번 주일부터 교우 각 가정에 2007년 교무금과 성전헌금 납부내용을 우송합니다. 납부내용 하단에 기재된 2008년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0일: 토런스 남1반 (소고기국밥 \$3)
- 2월17일: P.V. 2반 (육개장 \$3)

남가주 소식

◆ 베네딕도 16세 교황 집전 미사참례

- 교황 베네딕도 16세께서 올 봄에 미국을 방문,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미사참례(뉴욕만 가능)를 원하는 신자는 LA대교구 웹사이트(www.la-archdiocese.org)에서 2월11일까지 티켓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때·곳: 4월20일(주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

◆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특강

- 2월14일(목), 15일(금), 16일(토) 오후 7시
- 장소: 성 바실 지하성당(637 S. Kingsley Dr. LA)
- 강사: 박형애 요세피나 수녀(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원)

◆ 가톨릭 신문사 주최 스페인-포르투갈 성지순례

- 일시: 3월31일(월)~4월11일(금), 11박 12일
- 회비: \$3,100
- 신청마감: 2월15일 ☎ 323-735-0505 가톨릭 신문사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홍안나 213-385-0809 2/8(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6(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2/15(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박인식 토마스 953-9597 2/10(일) 오후 5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윤선희 로사 371-9697 2/11(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8(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신경숙 에스텔 613-0789 2/12(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상철 213-258-7797 2/15(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2/8(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784-0460 2/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김은 안나 541-5429 2/15(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유미 크레센시아 541-4760 2/8(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2/22(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한겨울 빈들의 외침을 들어보라.

한겨울 빈들에 서는 마음에
 하나의 일깨움이 있습니다.
 한겨울 빈들은 삭막함이 아니라 고요함이며,
 조바심이 아니라 기다림이며,
 떠벌림이 아니라 겸손함이며,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씬임을
 해마다 이맘때면 다시 듣는 자연의 진리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하나 둘 옷을 껴입지 않고
 오히려 그 차가운 바람을 맨몸으로 받으려,
 입었던 화려하고 풍성한 옷을
 모조리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한겨울 빈들에 서 있는 나무는
 소리 없는 외침으로
 진리를 말해줍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
 빈들이 될 수 있는 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마음으로 알 때이며,
 내가 잘났다고 자신 있게 사는 인생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둘 줄 아는
 마음이 생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빈들은
 가난함이나 궁색함이 아닌
 풍성함을 위해 불필요함을 내려놓는
 거룩한 순간을 사는 때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두고 그분 앞에 설 우리네 인생
 지금부터 하나 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치 않을까요?

◆시와 노래 (어느 수녀님의 글) 다소 각색.